

# 무왕이 꽃피운 찬란한 백제문화, 가족과 함께 즐기자

서동선화의 사랑과 백제 30대 무왕이 꽃피운 찬란한 백제문화가 빛의 향연으로 피어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4 익산서동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금마서동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도시 전체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해 무왕 제례와 시민참여 퍼레이드, 서동 선발대회 등 개막행사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왕제례와 무왕행차 퍼레이드

개막일인 3일 익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고취대, 가마장군, 백제기수단, 무왕 행차 가마 등 30대 무왕의 행렬을 재현하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퍼레이드는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치며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축제가 될 전망이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서동축제의 주인공인 서동을 찾는 '서동선발대회'를 진행한다.

선발된 서동의 즉위식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선포하며 가수 김수찬, 신인선, 설화수, 할리퀸, 영우, 철희, 투가이즈의 축하공연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개막행사를 마무리한다.

이어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금마 서동공원에서는 다채로운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 ▲아름다운 야간경관과 영상으로 만나는 백제문화

청룡의 해를 맞아 희망을 전하는 청룡 터널과 소원 터널, 백제왕도 익산의 이야기를 담은



개막일인 3일, 무왕제례 무왕행차 퍼레이드 펼쳐 서동선발대회도 진행

4일부터 6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불거리 가득 LED 수상 야간경관 무왕의 꿈 주제 영상 등

가족 중심 미니운동회 활쏘기·백제복식체험 등 즐길거리들도 풍성



대형 백제 유등, 금마 저수지에서 펼쳐지는 LED 수상 야간경관은 5월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왕루 1층 전시실에서는 '무왕의 꿈' 주제 영상을 통해 서동과 선화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와 과거 백제 30대 무왕이 꽃피운 백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할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금빛서동: 백제무왕이 되어라!'와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 등 관람객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금빛서동: 백제무왕이 되어라!'는 놀이형 체험으로 임무를 완수한 1등에게는 금 두돈, 2등에게는 금 한돈, 3등에게는 금 반돈을 증정한다.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는 익산의 특산물 마를 맛보고 서동요와 서동설화를 통해 춤추고 노래하는 오감만족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어린이 및 가족 중심의 미니운동회, 라디오 DJ체험, 활쏘기 및 검술 체험, 소원 유등 만들기, 백제복식체험, 무료 체력측정, 코끼리 열차와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된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풍선쇼와 마술쇼, 비눗방울, 무언극, 불꽃놀이 등을 선보이고 풍선, 하트봉, 부채, 이야기책, 솜사탕 등 다양한 선물도 마련했다.

익산서동축제는 축제장 내 주차할 수 없어 셔틀버스를 타고 방문해야 한다. 셔틀버스는 익산역과 터미널, 전자랜드 사거리,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에서 출발하며, 자세한 탑승시간은 익산서동축제 누리집(seodong.ik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는 많은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백제왕도 익산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익산을 대표하는 서동 축제와 무왕 행차 퍼레이드가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의회  
함께해요, 익산!

##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